

2023-01-16 (2023-02호)

01월 16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단기 하단 굳힐까... 中 지표•BOJ 충격 재연 여부 주목

서울, 1월1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위험 선호와 달러 약세 연장 여부를 살피면서 단기 저점 레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25-1,260원이다.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인되자 글로벌 투자심리는 지지받고, 달러는 약세 분위기다. 이에 작년 심한 타격을 받았던 신흥국 통화 위주로 강세 탄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

작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간 달러/원 환율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은 고민이 적지 않다. 펀더멘털이나 수급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점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원 되돌림이 컸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달러/원 1,230원대에서 단기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달러 약세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달러/원 저점이 한 차례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달러/원 다음 지지선은 20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의 50% 조정 레벨 부근인 1,224원 선이 고려되고 있다.

중국의 갑작스런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로 인한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이전 사례를 볼 때 방역 완화 조치 시행 이후 2-3개월 이후부터 내수 소비가 급증하는 등 경제 정상화가 진행된 만큼 중국 리오프닝을 염두에 둔 기대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다.

이번 주 17일에는 중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해 1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시기의 경제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가 부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같은 결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나간 재료로 해석하며 중국 리오프닝 기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침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지표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주요 기업 4분기 실적과 미국 12월 소매판매 지표 결과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를 앞두고 여러 연준 위원 발언도 줄줄이 대기 중인 만큼 이에 따른 시장 해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작년 12월 국내외 외환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일본은행(BOJ) 정책회의 또한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화 발 달러 약세 확산과 이에 원화가 반응하며 변동성이 대거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다음 주 설날 연휴를 앞두고 국내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주까지 역내 수급은 대체로 균형적인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16일(월)

- ⊙ 금융감독원: 원장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UAE 순방 (14~17일)

1월17일(화)

-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10:00)
- ⊙ 한국은행: 2022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UAE 순방 (14~17일)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다보스 포럼 (17~19일)

1월18일(수)

-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장 간담회 (10:30)
- ⊙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2년 4/4분기 동향 및 2023년 1/4분기 전망) (12:00)
- ⊙ 한국은행: 총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15:00)
- ⊙ 기획재정부: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15: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다보스 포럼 (17~19일)

1월19일(목)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10:00)
- ⊙ 한국은행: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BOK경제연구 2023-2호) (12:00)
- ⊙ 금융감독원: '22.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新성장전략 TF 회의 (14: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다보스 포럼 (17~19일)

1월20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 다보스포럼 참석 결과 (09:00)
- ⊙ 한국은행: 2023년 설 전 화폐공급 실적 (12:00)

1월21일(토)

- ⊙ 관세청: 1.1~20일 수출입 현황

1월22~23일(일~월)

- ⊙ 주말, 설 연휴

1월24일(화)

- ⊙ 설 연휴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16~17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YTD)	1-12월		9.90%
1월16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12월		0.6%
1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2월		-1.6%
1월17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YTD)YY	1-12월	5.0%	5.3%
1월1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2월	0.8%	2.2%
1월1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2월	-7.8%	-5.9%
1월17일	11:00	중국	GDP YY	4분기	1.8%	3.9%
1월17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월	-4.50	-11.20
1월18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제조업지수	1월		8
1월18일	08:00	일본	로이터단칸 서비스업지수	1월		25
1월18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11월		5.4%
1월18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11월		-0.1%
1월18일	22:30	미국	PPI 최종수요 YY	12월		7.4%
1월18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2월	-0.5%	-0.6%
1월18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2월	-0.1%	-0.2%
1월19일	00:00	미국	기업재고 MM	11월	0.4%	0.3%
1월19일	00:00	미국	소매재고	11월		-0.3%
1월19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월		31
1월19일	08:50	일본	수출	12월		20.0%
1월19일	08:50	일본	수입	12월		30.3%
1월19일	08:50	일본	무역수지	12월		-2,029.0B
1월19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11월		-0.402B
1월19일	22:30	미국	건축허가	12월	1.380M	1.351M
1월19일	22:30	미국	주택착공	12월	1.385M	1.427M
1월19일	22: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9일 주간		205k
1월20일	08:30	일본	CPI YY	12월		3.8%
1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1월		3.65%
1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1월		4.3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16일(월)

-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20일까지)
- ⊙ 휴장국가: 미국(마틴 루터 킹 데이)

1월17일(화)

-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18일까지)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10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은 주최 컨퍼런스 환영사 (18일 오전 5시)

1월18일(수)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연은 리스크 관리 모델 포럼 환영사 (오후 11시)
- ⊙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월스트리트저널(WSJ) 화상 인터뷰 (오후 11시30분)
- ⊙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DC 재정클럽에서 연설 (19일 오전 3시)
-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19일 오전 4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관련 연설 (19일 오전 5시15분)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텍사스주립대 맥콤스 경영대학원 주최 행사서 연설 (19일 오전 7시)

1월19일(목)

-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발표 (오후 6시)· 기자 회견 (오후 6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다보스포럼 참석 (오후 7시30분)
-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 연은 주최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1시)
- ⊙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주최 행사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20일 오전 3시15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채권애널리스트협회 주최 행사 참석 (20일 오전 8시35분)

1월20일(금)

-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다보스포럼 참석 (오후 7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뉴저지 은행인 경제 리더십 포럼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1시)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외교협회 이벤트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21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대만

▶ 금주 세계 5대 이슈

⊙ BOJ 통화정책회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동폭을 확대해 시장을 놀라게 했던 일본은행(BOJ)이 17-18일 정책회의에 서도 추가 조치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10년물 수익률은 BOJ가 정한 밴드 상단인 0.5%를 처음으로 넘어 0.54%까지 상승했다. BOJ 관계자들이 통화 완화로 인한 채권시장 왜곡을 점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엔 가치는 7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도쿄의 물가 상승률이 BOJ 목표치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임금을 최대 40% 인상하겠다는 유니클로 모기업의 결정이 추세를 형성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초완화 정책을 지속할 명분은 확실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1월16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역대 가장 많은 각국 정상과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한다.

WEF의 서베이에서 향후 2년에 대한 최대 리스크로 지목된 생계비 위기, 자연재해 위협과 기상 이변, 지정학적·경제적 대립, 기후변화 완화 실패 등에 고심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분위기는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류허 중국 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美 소매판매와 기업 실적

이번 주 미국에서는 소매판매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S&P500지수가 2008년 이후 최악의 연간 하락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4% 가까이 빠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은 지표와 실적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1월 소매판매는 11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는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0.6% 감소했던 소매판매가 12월에도 0.5%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10월 이후 크게 낮아진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가 17일, 프록터앤갬블(P&G)과 넷플릭스가 19일 각각 실적을 발표한다.

⊙ 중국 경제지표

중국은 견잡을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춘제를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이번 주 발표되는 1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4분기 GDP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는 7.8%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은 1.8%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세계 경기침체 리스크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인원 20억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향 행렬에도 관심이 모인다. 본토 시장은 다음 주 휴장하지 만,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여행이나 소비 지출 의지를 얼마나 보이느냐가 향후 리오프닝 전개 예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세계의 물가 급등세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 작년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은 기저효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 중이다. 중앙은행들이

경계를 낮출 수 없는 이유다.

금주 유로존과 영국, 캐나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다. 이들 지역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대부분 상승세이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을지 몰라도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 주간 국내 및 세계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역내) +2.20%, 위안(역내) +1.84%, 달러지수 -1.66%
- 국내 주가: 코스피 +4.20%, 코스닥 +3.32%
- 미국 주가: 다우존스 +2.00%, 나스닥 +4.82%, S&P500 +2.67%
- 국내 국고채(레퍼니티브 실시간): 3년 -31.2 bps, 10년 -27.2 bps
- 미국 국채: 2년 -1.9 bps, 10년 -6.0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8.26%, 금 선물 +2.92%